

변화의시작
다시,중구!

기자회견문

배포일시

2024년 03월 11일

보도일시

즉시 보도

더불어민주당 울산중구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장 김성민 010.4414.5914

박성민 후보 삼청교육대 의혹 해명하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울산 중구 국회의원 후보 오상택입니다.

상대당의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가 된 경쟁자에게는 마땅히 축하를 하고
정정당당한 정책공약을 통해 선거를 이끌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국민의힘 비대위, 공천관리위원회, 박성민 후보 모두를 향해
울산 중구 구민을 대신해 깊은 유감을 밝히며,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청교육대 출신 조폭 해관은 공천 적격 사유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국민의힘 김성태 전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두고는 ‘구정물 공천’ 등의
표현을 쓰며 문제가 있는 것 처럼 분탕질을 하더니,
정작 자당 내에서도 문제가 불거진 후보를 공관위에서 요청한
해명 절차도 없이 딱하니 **경선에 올리는 만행**을 저지르며,
울산시민을 욕보이고, 모욕했습니다.

국민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오염수 공천을 자행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지도부 및 공관위원들은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박성민 후보에게 요청합니다. 국민의힘 울산 중구 경선을 통과한 박성민 후보는
3월 22일 입후보 시한 전까지 **“삼청교육대”** 입소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공판위에서 요구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라”는 요청을 이행하십시오.
만약 이 시안까지 해명하지 못한다면 후보직을 사퇴하십시오.

이것은 국민의힘 공판위의 요청이기 이전에 울산 중구민들!
나아가서는 울산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본인 입으로 ‘네’라고 확답까지 하셨으니 반드시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과 박성민 후보가 이번에도 해명 없이 묵살하듯 넘어간다면,
당사자의 명확한 해명을 들을 때까지 **삼청교육대 출신 조폭 핵관** 의혹에 대해
전 국민이 알 때까지 해명을 요구하고 외칠 것입니다.

2024. 03. 11.
울산 중구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오상택